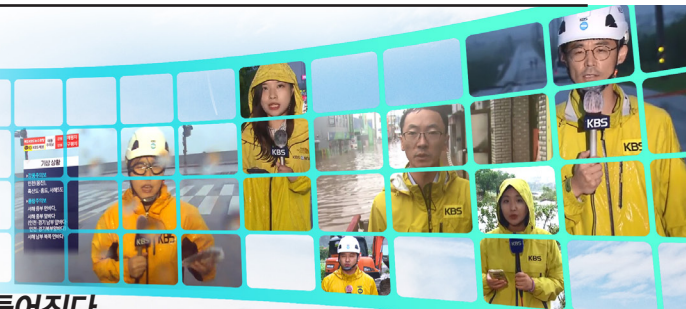


KBS에 ‘재난전문채널’ 신설 UHD MMS 활용 “365일 24시간 재난정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지상파 다채널방송(MMS)을 활용한 ‘재난전문채널’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재난전문채널’이 본격화되면 재난방송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재난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전문채널’ 신설되면 24시간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제공 가능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24시간 ‘재난전문채널’이 새롭게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통해 KBS가 재난정보를 24시간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KBS에 ‘재난전문채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전문채널’ 신설은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난과 코로나19 같은 사회재난이 장기화되면서 정확하고 심층적인 재난정보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신설되는 ‘재난전문채널’은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Multi Mode Service)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UHD 1TV의 9-2 채널이 그 대상이다. KBS는 국내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도쿄 올림픽이 시작한 지난 7월 23일부터 UHD 1TV를 9-1과 9-2, 9-3으로 쪼개 방송하는 UHD 다채널 시범방송을 서비스하고 있다. 방통위는 KBS와 ‘재난전문채널’ 신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필요한 자원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S도 ‘재난전문채널’ 추진 실무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재난전문채널 시범방송의 운영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3년 ‘재난전문채널 정규방송’ 목표… 재난방송 접근성·정확성 강화

‘재난전문채널’은 ▲ 2021년 ‘수도권 재난 전문채널 시범방송’ ▲ 2022년 ‘전국권 재난 전문채널 시범방송’ ▲ 2023년 ‘재난전문채널 정규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S는 이미 온라인을 통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D-라이브> 채널을 시험방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방송을 TV와 디지털 각 영역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S와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될 예정인데, KBS의 재난 감시용 CCTV 화면과 각종 재난방송 콘텐츠를 다른 방송사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KBS는 앞으로 재난전문채널이 본격화되면 365일 재난방송체제를 통해 재난방송의 접근성, 정확성을 강화함으로써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와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 나갈 방침이다.



※ 지상파 다채널방송(MMS)은 디지털영상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 1개 지상파 채널에 제공하던 주파수 대역을 쪼개 2개 이상의 채널을 송출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올 추석엔 심수봉!
국민께 감사와 희망 전한다

심수봉 26년 만의 단독 TV쇼... “피어나라 대한민국”

지난해 나훈아에 이어 올 추석에는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가수 심수봉이 온 힘을 다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통해 감사와 희망을 전한다. 바로 2021 한가위 대기화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이다. 공연에 앞서 심수봉 씨는 “이런 대형 단독 쇼는 데뷔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라며 “흔히들 제 노래는 비탄조의 슬픈 멜로디라고 하더라. 이번 공연을 통해 나에게도 다양한 리듬과 신나는 분위기의 노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밝히 지금까지 심수봉에게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반전 무대를 예고했다. 심수봉 씨는 “코로나로 관객 없이 언택트 공연을 하게 됐지만 대규모 무대와 화려한 LED 영상, 퍼포먼스가 다채롭게 구성됐다”며 시청을 당부했다.

한가위를 장식할 최고의 무대... “어머니의 따뜻함과 화사함으로 진한 감동”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공연은 지난달 29일 저녁, 일산 킨텍스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초대된 언택트 관객 1,000명의 뜨거운 환호 아래 진행됐다. 이번 공연에서 심수봉은 전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백만송이 장미〉, 〈사랑밖엔 난 몰라〉 등의 히트곡에서 숨겨진 명곡까지 총 21곡을 불렀고, 후배 가수들과의 깜짝 콜라보 무대로 관객들에게 희망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드럼 연주에서 댄스, 합창까지 소화하는 등 놀라움을 자아낼 만큼의 다채롭고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레전드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후문이 있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의 제작을 맡은 예능센터 이태현 PD는 “심수봉 선생님이 공연을 다 끝내고 하는 말이 ‘모든 무대가 노래와 너무나 잘 어울려서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했다’며 ‘KBS에 정말 감사하다’고 연신 눈물을 흘리셨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공연은 강단 있고 규모가 큰 무대 속에 우리 어머니들의 따뜻함과 화사함이 적절히 스며들어난 특별한 지점이 있다”는 연출 의도를 밝혔다. 한가위를 장식할 최고의 무대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공연은 오는 19일 일요일 저녁 8시 KBS 2TV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KBS 2021 한가위 대기화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9월 19일(일) 저녁 8시 KBS 2TV

[추석 특집 프로그램 소개: 3면에 계속 ▶]

지난해 한가위 대기화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했던 KBS가 올 추석에는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으로
따뜻하고 진한 감동을 전한다.

심수봉 26년 만의 단독 TV쇼... “피어나라 대한민국”

KBS,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방송매체 1위! KBS <뉴스9>, 가장 신뢰하는 방송 프로그램 1위!

시사주간지 <시사IN>이 지난 9일 공개한 <2021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방송매체는 ‘KBS’이고, 가장 신뢰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KBS <뉴스9>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사IN>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관한 국민의 ‘신뢰도’를 묻는 <2021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매체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KBS’를 1순위로 꼽은 응답이 1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JTBC가 8.4%로 2위를 차지했고, MBC(7.4%), TV조선(6.9%), YTN(6.3%), 유튜브(4.7%), SBS(4.0%) 등의 순이었다. ‘가장 신뢰하는 방송매체’ 조사에서도 KBS가 20.5%의 응답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JTBC(12.7%), MBC(11.6%), TV조선(8.6%), YTN(7.5%), SBS(7.4%) 순이다. ‘가장 신뢰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KBS <뉴스9>이 4.1%로 1위에 올랐고, <김어준의 뉴스공장>(3.9%), <그것이 알고 싶다>(3.6%), <JTBC 뉴스룸>(2.8%)이 뒤를 이었다. <2021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의 전체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조사는 <시사IN>이 여론조사 기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35명으로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81.5%, 유선 18.5%)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p다.

제12기 KBS 이사회 출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정착을 위해 KBS 이사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2기 KBS 이사회(이사장 남영진)가 지난 1일부터 공식 출범했다. KBS 이사회는 방송법 제46조에 의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11명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다. KBS 이사회에서는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예산·자금계획, 결산, 손익금의 처리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남영진 이사장

- 前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前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
- 前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



이상요 이사

- 前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 前 KBS 정책기획센터 기획팀장
- 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김찬태 이사

- 現 개인정보보호협회 부회장
- 前 KBS 보도본부 선거방송전문PD
- 前 KBS 보도본부 선거방송프로젝트팀장



권순범 이사

- 現 극동대학교 초빙교수
- 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 前 KBS 정책기획본부장



이석래 이사

- 現 우림이앤에스 고문
- 前 KBS 미디어텍 대표이사
- 前 KBS 강릉방송국장



윤석년 이사

- 現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 現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前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이은수 이사

- 前 KBS 심의실장
- 前 KBS 전략기획실 방송문화연구소장
- 前 KBS 콘텐츠본부 교양국장



류일형 이사

- 前 연합뉴스 기자
- 前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 前 부산일보 기자



정재권 이사

- 現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 학장
- 現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발전위원
- 前 한겨레신문사 사회부장



김종민 이사

- 現 김종민 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청장



조숙현 이사

- 現 법무법인 원 변호사
- 現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위원
- 現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12기 이사회의 임기는
2024년 8월 31일까지이다.

신임 이사장 인사말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 한국방송’의 이름값에 걸맞은 이사회가 되겠습니다.

국가 기간방송 KBS의 이사가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KBS가 얼마나 큰 조직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KBS 1TV·2TV 등 본방송은 물론 국제방송, 한민족방송 등 방송 영역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 있었습니다. 고품스러운 본관, 현대식 IBC 등 건물 곳곳과 임직원들의 표정에서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언론인이자 언론학자로서 밖에서 보아 왔던 KBS가 이제 새 일터가 된 것이 기쁩니다. 새삼 어깨에 무게가 느껴집니다.

새 이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훌륭한 차기 사장 및 감사 등을 선임하는 일입니다. 차기 집행부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기에 중요한 일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방송과 보도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끌 사장을 뽑는 과정에서 12기 이사회는 하나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KBS의 제1 책무는 잘못된 정보, 정파적 시각의 보도가 난무하는 시대에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 화합을 위해 시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일이 공영방송 KBS의 제2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셋째, 감염병·태풍·지진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핵심적 존재 이유입니다.

저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리모컨으로 KBS 채널로 돌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재난 시기에 공영방송의 역할이 엄청남을 체감한 바 있습니다. KBS가 이같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해가면서 수신료를 정상화하는 일도 해결될 것입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적 재난을 맞아 방송 일선에서 분투하시는 KBS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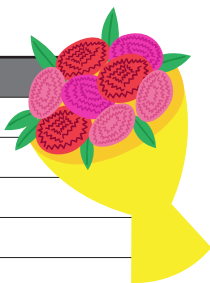
12기 이사들은 여러분들과 어깨를 걸고 일하겠습니다. 치열한 토론을 하면서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 한국방송’의 이름값에 걸맞은 이사회가 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KBS 이사회 이사장 남영진

수상을 축하합니다!

구분	분야	부문	수상
제48회 한국방송대상 (방송협회)	작품상	지역시사보도(KBS 광주)	〈시사기획 창 - 농산물 가격의 비밀, 누가 돈을 버나?〉
		사회공익TV	〈시사기획 창 - 남겨진 사람들〉 3부작
		사회공익R(2그룹)	〈기억을 기록하다〉
		다큐멘터리TV	〈다큐 인사이트 - 성여〉 2부작
		다큐멘터리R	특집 다큐멘터리 〈두 엄마 이야기 - 소선이 미숙에게, 미숙이 소선에게〉
		드라마TV	〈달이 뜨는 강〉
		예능버라이어티TV	〈1박 2일 시즌4〉 ‘1주년 특집 글로벌 프로젝트 : Feel the Rhythm of Korea’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우수상	사회통합	손성권(스포츠제작보도), 하동금(미술), 이유미(음악), 정상열(조명), 최원정(아나운서) 외
		창의혁신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나는 여자 의용군입니다〉
	특별상	공로상	아카이브 프로젝트 〈모던코리아〉 KBS 재난미디어센터



“시청자주간, KBS 적극 응원하는 시청자 늘리는 기회 되길”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시청자주간’ 행사가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성황리에 종료됐다. KBS는 시청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고 시청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매년 9월 첫 주를 ‘시청자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를 총괄한 이도경 시청자센터장으로부터 그 성과의 의미를 들어봤다.

Q KBS에게 시청자는 어떤 의미인가?



이도경 시청자센터장

시청자는 KBS 콘텐츠의 소비 자이자 수신료를 납부하는 지불자이며 공영방송의 근간인 시민입니다. 이제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시대가 지나고, 케이블, 위성, IPTV, OTT, 유튜브 등 미디어 빅뱅의 시대를 맞아 시청자의 시간을 점유하기 위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우리가 시청자와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한다면, KBS의 존립 근거는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방통위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서도 공영방송의 최우선 과제로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가 꼽힌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Q ‘시청자주간’ 제정 의의와 성과는?

시청자주간은 2020년 9월 첫 주, 시청자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아 선포됐고, 시청자포럼 개최와 <뉴스9>의 수어 통역 서비스 실시, 그리고 다양한 시청자 관련 특집프로그램의 첫 시청자주간이 꾸며졌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시청자주간을 맞아 9월 1일부터 4일까지 KBS 둘레길 개방, 경영진과의 대화 <시청자가 묻는다>, 1020 시청자위원들이 참여해서 제작한 <1020, KBS를 말한다>, 온라인 공연 <독도 판타지> 등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지역국도 지역국 상황에 맞는 다양한 특집과 행사를 준비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청자주간’이 KBS의 주요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Q ‘시청자와 경영진과 대화’에서 나온 의견 중 KBS가 귀담아들어야 할 이야기는?

시청자들이 여러 설문조사나 토론회를 통해 일관되게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경영의 투명성’입니다. 위의 두 가지는 ‘설명책임의 강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책임 이행을 통해 보도나 프로그램의 과정과 개선사항을 공개하고, 또한 경영현황과 수신료 사용처를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공영방송을 키워나가는 바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영진과의 대화에서는 아울러 젊은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이나 플랫폼 정책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의 ‘보편성’에 대한 요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파편화된 시청자의 취향과 시청행태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양성’을 통한 ‘보편성’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가가 당면한 KBS의 과제라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Q 올해 선발된 ‘1020 시청자위원’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올해 5월에 29명의 1기 1020 시청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매달 각 분야 별로 제작 실무자 및 책임자

와 함께 미디어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을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이번 시청자주간에도 ‘사장님 질문 있습니다’, ‘뮤직뱅크를 털어보았습니다’ 등 8개의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에 활용하고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또한 <1020, KBS를 말한다>라는 50분 종합구성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1020 시청자위원들 중에서도 상당한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나 블로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든 KBS 관련 콘텐츠들이 젊은 층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1020 시청자위원들은 6개월간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가칭 ‘KBS 홍보대사’로 임명해, KBS가 젊은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매개자의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 향후 시청자주간 운영의 지향점은?

앞으로 시청자주간은 어느 한 부서의 행사가 아니라, KBS 전체가 공영방송의 기반인 시청자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사 전체에 시청자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간다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청자주간 특집 <국민의 방송 KBS, 국민 속으로>란 프로그램에서 한 패널이 KBS는 비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KBS를 지지하는 시청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시청자주간을 통해 공영방송 KBS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시민과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늘려나가기 바랍니다.

한가위 연휴를 즐겁고 알찬 KBS 프로그램과 함께!

추석 특집 TV & Radio 프로그램

■ <이거 알아?>

<이거 알아?>는 음악 평론가, 변호사, 뇌과학 커뮤니케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잡학 다식한 지식을 소개해주는 신개념 지식 플렉스 예능 프로그램이다. 베테랑 MC 전현무가 진행을 맡았고, 가수 김종민, 슈퍼주니어의 은혁, 개그맨 이진호 등이 패널로 출연해 지식인들이 출제하는 다양한 문제에 도전한다. 또한 랜선 판정단이 실시간 비대면으로 참여해 최고의 지식 플렉스를 선보인 지식인에게 하트를 눌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회로 편성됐다.

▶ 9월 20일(월) 오후 6시 KBS2

▶ 9월 21일(화) 오후 6시 40분 KBS2



■ <전설의 배우들>

<전설의 배우들>은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출연해 각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탄생기를 들려주는 본격 ‘시네마틱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다. 배우 한고은, 이유리, 이재용, 윤현민, 최민호(샤이니)와 애니메이션 뽀로로 목소리의 주인공 성우 이선 등이 스토리텔러가 되어 <고양판 잔다르크 밥할머니>, <조선판 비트코인 거부 반복창> 등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명품 연기로 맛깔나게 전달해줄 예정이다.

▶ 9월 20일(월) 오후 7시 20분 KBS2

▶ 9월 22일(수) 밤 10시 40분 KBS2



■ <한 번쯤 멈출 수밖에>

<한 번쯤 멈출 수밖에>는 가수 이선희가 절친들과 함께 떠난 여행길에서 만나는 노래와 이야기,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감성 로드 다큐 프로그램. 이선희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날 절친으로는 김이나(작사가), 이찬혁·이수현(악동뮤지션), 이금희(방송인) 등이 출연한다. 여행길에 펼쳐질 아름다운 풍경들과 절친들이 선곡한 노래들은 코로나19로 여행이 어려워진 시청자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힐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 9월 20일(월)~9월 22일(수) 오전 9시 40분 KBS1



■ KBS 라디오,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 여행> 방송

KBS 쿨FM과 2라디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청취자들을 위한 <5일간의 음악 여행> 특집 방송을 준비했다. 쿨FM(수도권 89.1MHz)에서는 <조우종의 FM대행진>부터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달라진 추석 연휴 풍경을 전하는 코너들을 방송한다.

2라디오(수도권 106.1MHz)는 <김혜영과 함께>, <주현미의 러브레터> 등 대표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취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전하는 한편, 귀성·귀경길의 실시간 교통정보 및 날씨 정보 편의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KBS 라디오
KONG

<뉴스9> 이소정 앵커, 최은희 여기자상 수상

<뉴스9> 앵커인 이소정 기자가 제38회 최은희 여기자상을 수상했다.

이소정 기자는 15일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통해 “약 100년 전 최은희 기자께서 디딤돌을 놓아주신 덕에, 이후 수많은 선배가 용기를 내주신 덕에 매일매일 도전하고 있다”면서, “저 역시 후배들이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은희 여기자상 심사위원회는 “<뉴스9> 첫 여성 메인 앵커로 여성 언론인의 역할과 영역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취재 기자로서 <사시기획 창> 특집 ‘조선학교 - 재일동포 민족교육 70년’, 멕시코 반군 지도자 인터뷰 등과 같은 다양한 보도로 기획 탐사보도의 모범을 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최은희 여기자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며 큰 발자취를 남긴 추계 최은희(1904~1984) 여사가 낸 기금을 바탕으로 1984년 제정됐다.



주말 드라마

꼰대 신사와 천방지축 아가씨가 펼치는
상큼발랄 힐링 로맨스

신사와 아가씨

♥ 신사로 변신한 로코 킹 지현우 × 당찬 오뎅이 캐릭터 이세화...
상큼발랄 로맨스에 궁금증 UP!

〈오케이 광자매〉 후속으로 오는 25일부터 방송될 새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다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신사’와 흠수저 ‘아가씨’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오랜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지현우는 기업 회장이자 아내와 사별한 세 아이의 아버지 이영국 역을, 이세화는 영국네의 입주 가정교사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당찬 아가씨 박단단 역을 맡았다. 두 사람의 로맨스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을 통해 사랑과 배신, 욕망과 질투 등 다양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그려낼 예정이다.



♥ 믿고 보는 KBS 주말드라마! 대본·연출·연기의 완벽 3중주...
흥행불패 신화 이어갈까

〈신사와 아가씨〉는 〈비밀의 남자〉, 〈끝까지 사랑〉 등 일일극을 통해 디테일한 연출력을 선보여온 신창석 PD가 20여 년 만에 주말극에 도전하는 작품. 여기에 시청률 50%에 육박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하나뿐인 내편〉을 집필한 김사경 작가가 의기투합하여 선보이는 작품이다. 김사경 작가의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몰입도 높은 연출력을 선보여온 신창석 PD의 특급 만남! 여기에 지현우, 이세화, 강은탁, 박하나 등 눈을 땔 수 없는 명품 배우들의 연기 또한 다시 한번 KBS표 명품 주말극의 흥행불패 신화를 이어갈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첫 방송 9월 25일(토) 저녁 7시 55분 KBS

수목 드라마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남녀의 아트한 로맨스

달리와 감자탕

♥ 차도남 김민재 × 팔방미인 박규영... 대세 배우들의 특급 만남!

오는 22일 첫 방송되는 〈달리와 감자탕〉은 호화로운 미술관을 배경으로 성장 배경, 재력, 학력, 취향, 가치관 뭐 하나 비슷한 것 없는 극과 극의 두 남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로맨틱 코미디.

자그마한 감자탕집에서 시작해 글로벌 외식 기업가로 성장해 ‘무지·무식·무학의 3無’지만 생활력 하나는 끝내주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남자 주인공 진무학 역에는 김민재가 7개 국어에 능통한 명문가 집안 엘리트이자 미술관 객원 연구원으로 ‘가심비’를 중시하는 여자 주인공 김달리 역에는 박규영이 맡았다.

일자무식 졸부와 몰락한 미술관을 살리려는 명문가의 딸이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채무 관계로 얽히지만, 극이 진행될수록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상큼하고 달달한 케미를 보여줄 예정이다.



♥ 개성파 배우들 × 섬세한 연출력에 볼거리까지... 기대감 UP!

〈달리와 감자탕〉은 웃음과 리얼리티를 책임질 조연급 배우들의 면모도 화려하다. 달리의 첫사랑이자 세기 그룹의 실장 장태진 역에는 권율이, 우직하며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은 상남자 중 상남자인 주원탁으로 활약할 황희, 허영심 많지만 귀여운 갤러리스트로 극에 활력을 불어넣을 안착희 역에 연우를 비롯해 우희진, 안길강, 서정연, 안세하, 황보라 등 베테랑 배우 군단이 대거 등장해 시너지 효과를 더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술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 만큼 보는 재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 〈단, 하나의 사랑〉, 〈동네번호사 조들호 1〉 등을 통해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정섭 PD와 〈어느 멋진 날〉, 〈마녀의 사랑〉 등을 통해 감각적이고 섬세한 필력을 선보여 온 손은혜·박세은 작가가 의기투합한 〈달리와 감자탕〉은 벌써부터 많은 팬들의 설렘을 유발하며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 첫 방송 9월 22일(수) 밤 9시 30분 KBS

고봉순과 함께 하는 '맛 기행 멋 기행'

시원한 육수와 고소한 육전이 어우러진 '진주냉면'

〈고봉순과 함께 하는 '맛 기행 멋 기행'〉 여섯 번째 순서. 이번에는 진주방송국 노정우 사위가 진주의 대표 음식인 진주냉면과 육전 맛집을 소개한다.

※ 사원 여러분이 직접 소개하는 '맛집'과 '명소'를 기다립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전국의 숨겨진 '맛집'이나 가볼만한 '명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취재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 : kbssabo@kbs.co.kr



시원한 육수와 고소한 육전이 어우러진 '진주냉면'



진주냉면

지인들이 진주에 놀러올 때마다 식사 중 한 번은 꼭 냉면을 넣을 정도로 '진주냉면'은 진주에서 유명하다. 흔히 냉면이라고 하면 평양냉면, 함흥냉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렇다면 진주냉면이란 무엇일까?

진주냉면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서부 경남에서 잡히는 '죽방멸치'를 기반으로 만드는 육수이다. 두 번째, 냉면에 고명으로 쓰이는 달걀옷을 입혀 부친 '육전'이다. 이 두 가지

냉면 위에는 황태포, 육전, 오이, 배, 계란지단까지 다양한 고명이 올라가 있어 고명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비주얼이다. 특히, 황포냉면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고명으로 올라간 황태포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냄새도 나지 않고 양념이 잘 되어져 있어 냉면과 매우 잘 어울린다. 그리고 육수는 새콤달콤하면서도 간이 강하지 않은 매력이다.

메뉴 중 '특미냉면'은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물냉면도 먹고 싶고 비빔냉면도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좋다. 그리고 만두는 간이 약하게 되어있어서 맛있는 양념이 되어있는 냉면과 같이 먹는다면 더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추가로 주전자에는 따끈따끈한 육수가 담겨있다. 시원한 냉면 한번 뜨끈한 육수 한 번 번갈아가며 먹으면 '뜨냉뜨냉'한 매력에 안 빠질 수가 없다.



육전

냉온의 매력이 잘 어우러진 '황포냉면'

황포냉면은 '면은 메밀 전분과 고구마 전분을 적당히 배합하여 만들어져 쫄깃쫄깃함이 일품이고 육수는 천연재료로 만들어 식초와 겨자 양념을 넣지 않고 먹으면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황포냉면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 34번길 10 / ☎ 055-762-7433
● 영업시간 : 평일 10:30~20:00 / 주말 10:30~20:00